

1 지원취지 및 접수현황

○ 사업 목적과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민

본 공모 사업은 올해로 3회째 접어드는 ‘인문’ 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다. 특히 ‘지역자원, 지역문화, 지역공동체’ 라는 3대 대분류를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영역을 지칭하는 인문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지점에 주목하고, 해당 주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하며 공모 요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될 필요성이 있음을 심의위원 모두 공감했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고문에 기재된 영상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작년 이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즉,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하되,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인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지역’ 에서 찾았다.

주최측에서 명명하고 있는 지역은 단순히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구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터전이고 개인 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정서적, 물리적 공간 개념을 포용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전체 인문 분야 공모사업에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모 심의에서도 해당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음을 밝힌다.

3회를 맞이하여 올해는 기존에 다큐멘터리 장르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와 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AI 기반의 영상제작 프로그램 사용 여부 표기 등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이런 맥락은 올해 진행된 전체 6개 공모 사업의 기본 방침인 창작자들의 ‘자율성’ 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추진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접수현황 : 이제는 전국에서 350건 정도의 기획안이 모이는 규모 안착

올해 공모에는 총 352건의 기획안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년(총 378건) 대비 26건 감소했으나, 최초 1~2회에 접수된 기획안 중 지역 관광 활성화나 지역 문화재 소개 등의 성격이 강한 지원건들이 3년차를 맞이하여 점차 본 사업의 정체성이 자리 잡아 가면서 발생하는 일부 조정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역별로 17개 시도에서 적게는 1건(울산)부터 10건이 넘는 누적 신청건수(충북, 부산)는 전체 권역에서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구분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접수건수	352	163	16	80	17	6	6	3	5	1	5	10	5	6	6	6	9	8
비율(%)	100	46.3	4.5	22.7	4.8	1.7	1.7	0.8	1.4	0.2	1.4	2.8	1.4	1.7	1.7	1.7	2.5	2.3
352건		259건(73.6%)			93건 (26.4%)													

2 지원대상 선정 과정

지원대상 선정은 1) 심의위원 대상 개별 안내 및 개별 온라인 서면심의, 2) 심의위원 전체 참여 1차 예심 선정 기획안 결정(심의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반), 3) 온라인 인터뷰를 통한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 사전 공개된 세부 평가내용에 충실한 지원 대상 선정

특히 개별 심사위원들의 관점 차이에 따른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을 3배수까지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과 기존 2회차 인문다큐 영화제 심의 경험을 갖춘 심의위원 간의 의견은 팽팽하면서도 점차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지역의 인문자원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고 본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했는지 여부. 즉, 사업 이해도에 대한 해석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2차 인터뷰 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70%가 넘는 신청 비중이었던 수도권 보다는 압도적으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포함)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요한 심의 기준인 창의성 측면에서 수도권 기반의 기획안이 기준에 여러 번 다뤄졌던 주제나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해 차별화된 기획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집계수	18	28	46
비율	39%	61%	100%

추가로 눈에 띄는 점은 이미 기성 TV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 분야에서도 수차례 다뤄진 지역이나 소재, 인물에 대한 기획안이 중복되는 것이 여럿 있었고, 여느 다른 공모 사업에서도 이제는 기본값이 되어 버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획안 작성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획안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2차 인터뷰 심의에서도 일부 확인되어 명확하게 기획안을 작성한 경우 응당 답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분에서 얼버무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신청서 1종만 접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2차 인터뷰를 앞두고 심의위원단이 최종 지원대상 선정에 앞서 가장 중시하고 비중이 50%인 실현 가능성(실제 최종 영상물 완성을 포함한 제작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46건의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제출을 안내했고,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 다큐멘터리 위주에서 장르 무관으로 확대한 후 경향 분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심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관심은 장르의 분포도였다. 올해 처음으로 다큐멘터리의 한정된 장르가 아닌 여러 장르를 확장하면서 장르의 분포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2차 심의 대상인 46편의 기획안을 분석해 보았다.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작>

구분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영화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합계
집계수	33	4	4	2	3	46
비율	72%	9%	9%	4%	6%	100%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신인과 기성, 영상 제작법인 등을 구분하여 지원신청서에 표기하도록 하여 어떤 형태의 신청자 분포가 이루어지는지도 현황을 정리하였다. 개인(19건)과 팀(22건)은 비중이 비슷했고, 법인의 경우도 5건이 있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법인격에 소속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신청한 경우도 발견되어 보다 정확한 분류를 선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획안이 참신하고 기존의 경력을 토대로 제작역량이 검증될 수 있다 할지라도 법인 등에서 총 제작비가 억대가 넘는 작품이나 특정 언론사나 매체에서 활용될 제작물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다면 본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이지만 지원신청자(단체)의 평상시 해당 주제에 대해 얼마나 누적된 고민을 해왔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왔는지를 인터뷰 과정에서 최대한 파악하려고 했다.

당초 2차 인터뷰 심의에는 1.5배수 이내인 35건 정도의 기획안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오랜 논의 끝에 46건이 오르면서 부득이하게 진행 일정상 스피디하게 짧은 인터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인터뷰 및 이후 최종 심사 과정은 매우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우수한 기획안을 선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다.

3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지났다고는 하지만 상업영화, 비상업 영화를 막론하고 모두들 위기를 논하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 여러 지원사업이 있고, 전국 각지에서 국제영화제 타이틀을 달고 개최되는 축제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지속하는 이유는 영상물이 인문정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한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와 재외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 인문자원과 주목해야 할 인물과 활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국 곳곳의 크고 작은 영화관과 복합문화공간에서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영상물 형태의 콘텐츠가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과 본 사업의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2편의 기획안을 선정하게 되었다. 일괄 1천 5백만원의 제작비(포상금 형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최종 영상물 완성 후 3~4건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공적지원 영역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예술계 역시 예외가 아니며 늘어나는 공적지원제도가 오히려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본 사업의 경우 신뢰에 기반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22팀의 신청자(개인/팀)은 명확한 예산 사용 항목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책임성 있게 공공재원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갈수록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물 사용과 각종 기법이 확대되고 본연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도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창작 과정에서 참여한 여러 인력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기타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한국영상자료원, KBS N과의 협력을 통한 선정작품 재상영 기회 확대

작년에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과 광주광역시 독립영화관에서 각각 2일간 개최된 영화제를 통해 확인된 확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올해 사업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협력기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방식이 어떻게 변모할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영화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고 더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심의위원회 및 담당부서 일동